

# 나의 작곡기법 공개

-Symphony No.4,5,6 창작메모를 중심으로-

나 운 영

판자집을 지으려면 설계도가 없이도 될지 모르나 적어도 본격적인 집을 지으려면 먼저 설계도가 필요하다. 즉 설계도 없이 막연히 집을 짓다가는 크게 실패하게 마련이고 설사 설계도를 만들어 가지고 집을 짓는다 해도 도중에 설계를 변경한다면 큰 손해를 보기 쉬운 일이다.

작곡을 하는 일은 마치 집을 짓는 일과 같다고 생각된다. 즉 먼저 「창작 메모」가 필요하다. 작품에 대한 상세한 계획,구상,기법 등을 적어놓고 붓을 들어야 하는 것이다.

나는 작품을 구상하는데는 오랜 기간이 소요되나 붓을 들면 비교적 단기간에 끝마칠 수 있다. 빈틈없이 <설계도-창작메모>를 작성해 놓은 다음에 그대로 진행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품을 쓰면서 구상을 하거나 작품을 쓰다가 막혀서 고민하는 일은 없다.

나는 「창작 메모」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며 이와 같은 창작방법을 모든 작곡학도에게 권하고 싶다. 이런 뜻에서 나의 창작 메모를 소개하려 한다.

## <Symphony No.4>

이 작품은 1964년 8월 3일에 착수하여 10월 31일에 완성되었다. 즉 선율은 7일간에 끝마쳤으나 교회집회 관계로 관현악 편곡이 지연되어 다른 작품에 비하여 매우 오래 걸린 셈이다. 나는 이 작품을 한마디로 말해서 의욕적인 작품이라고 말하고 싶다.

### <Instrumentation>

Piccolo, Clarinet, English Horn, Bassoon, Trumpet (2), Horn (4), Trombone (2), Tuba, Timpani, Side Drum, Bass Drum, Cymbals, Gong, Piano, 1st Violin, 2nd Violin, Viola, Cello, Double Bass

(주) 목관악기는 각각 1관으로, 금관악기는 각각 2관으로 편성하였고, Flute, Oboe가 빠진 특수 편성이다.

### <Style>

제1악장 ..... 신원시주의적

제2악장 ..... 점묘주의적

제3악장 ..... 신민족주의적, 신원시주의적

(주) 제3악장에 있어서 A는 신민족주의적이거나 B와 D와는 각각 제1악장의 제2주제와 제1주제를 재료로 삼았기 때문에 신원시주의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 <Form>

제1악장 "Chaconne"..... Free Sonata Form

제2악장 "Elegy" ..... Compound 2Part Fo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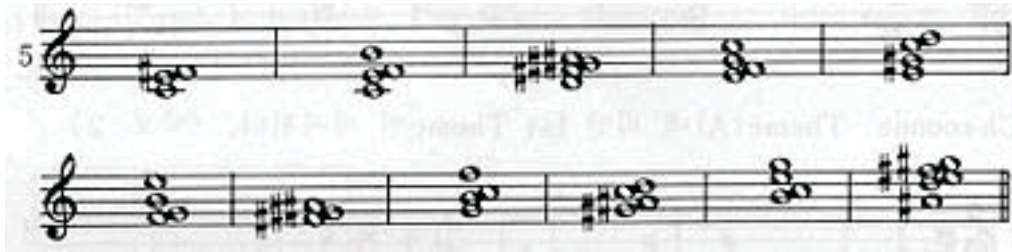
제3악장 "March"..... Rondo Form

(주) 1. 제1악장은 제시부를 반복하지 않으므로 Codetta가 필요없으며 재현부가 생략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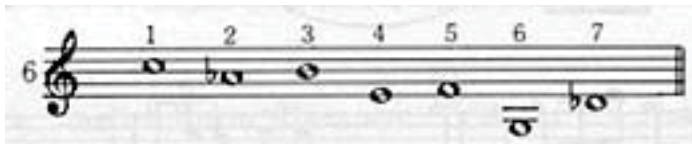
(주) 2nd Theme도 1st Theme과 마찬가지로 Chaconne Theme(B)의 분산화음에 의한 선율로서 이에 비화성음을 활용하여 선율성을 띠도록 하였으나 1st Theme에 비하면 순차적 선율이라고 말할 수 있다.

5. 발전부에서는 Chaconne Theme(A).(B)를 순차적으로 결합시켜(악보 5) 이에 의한 분산화음적 선율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결국 1st Theme과 2nd Theme을 동시에 발전시킨 셈이 된다.



### 제2악장

1. 7음음계 (C,Db,E,F,G,Ab,B)에 의한 음열(악보 6)을 가지고 a,b를 만들었다.



2. 12음음계에 의한 음열(악보 7)을 가지고 c,d를 만들었다.



3. a,b는 하행 Glissando를, c,d는 상행 Glissando로 연주하여 대조가 되도록 하였다.

4. 일절 Chord를 사용하지 않고 대위법적으로만 처리했고 점묘주의적 기법을 활용했다.

### 제3악장

1. 계면음계(C,Eb,F,G,Bb)에 의하여 A를 만들었다. (악보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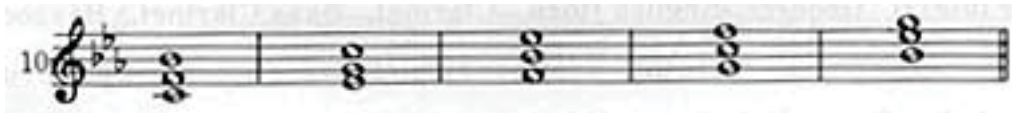
2. 제1악장의 2nd Theme을 B로 사용하였다.

3. 제1악장의 1st Theme을 C로 사용하였다.

4. 제2악장에 사용했던 7음음계를 가지고 D를 만들었다. (악보 9)



5. A는 Harmonia Ostinato로 화성을 붙였다. (악보 10)



(주) 전통적인 화성은 선율과 화음이 반드시 일치되어야 하고, 12음기법에 있어서는 선율과 화성이 절대로 맞지 않아야 하므로 변화가 없는데 있어서는 꼭 같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Harmonia Ostinato는 선율과 화음이 우연히 맞을 때도 있으므로 변화가 있어 매우 매력적이다.

나는 이 기법을 Symphony No.3에서 창안, 시도하였었는데 이 제3악장 A에서도 활용하였다.

#### <기타>

1. 박자기호를 자주 바꾸지 않고 Syncopation으로 변박자의 효과를 나타냈다.
2. Schonberg의 음색선율의 기법을 사용하였다.
3. 제1악장에 있어서는 Transition a,b는 1st Theme, 2nd Theme과 구별을 짓기 위하여는 단선율을 그대로 쓰되 악기를 자주 바꿔 변화를 주었다.
4. 제3악장에서는 Rhythm Canon을 활용하였다.

(주) Rhythm Canon은 「사치기 사치기 사뽀뽀」 식으로 소절마다 다른 리듬이 계속될 때에 이것을 다른 타악기들이 Canon으로 받아 모방을 계속 하는 것을 말한다.

5. 제1악장에 있어서 1st Theme과 2nd Theme은 각각5,6소절 간격의 Canon으로 연주된다.

6. 제1악장에 있어서도 Harmonia Ostinato가 활용되었다.

7. 제3악장의 Coda는 제1악장의 Chaconne Theme(A)의 역행형으로 끝난다.

8. 이 작품에 있어서의 화성체계는 결국 Symphony No.3의 기법에 따르나, 확신을 가지고 활용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 〈Symphony No.5〉

이 작품은 1965년 8월 3일에 착수하여 10월 23일에 완성되었다. 즉 선율은 8월 21일에 끝마쳤고, 9월 13일에 관현악편곡을 시작하여 40일 후에야 완성을 보게 되었다.

이 곡이 이렇게도 오래 걸린데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으나 무엇보다도 계획에 있어서 - 4악장제를 5악장제로 바꿨고, 제1,2,4,5악장에 모두 음열기법을 적용하였고 한편 관현악편성을 대편성으로 바꾸는 등 변경된 점이 너무도 많았던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이 작품은 Symphony No.4가 의욕적인 것에 비하여 나의 개성을 강렬하게 나타내 보려고 온갖 정열과 정력을 쏟은 작품이다.

### 〈Instrumentation〉

Piccolo, Flute(2), Oboe(2), English Horn, Clarinet, Bass Clarinet, Bassoon(2), Double Bassoon, Trumpet(3), Horn(6), Trombone(3), Tuba, Timpani, Side Drum, Bass Drum, Cymbals, Gong, Xylophone, Vibraphone, Piano, 1st Violin, 2nd Violin, Viola, Cello, Double Bass

(주) 정상적인 3관편성이다.

### 〈Style〉

제3악장을 제외하고 대체로 신원시주의적 내지 신민족주의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 〈Form〉

제1악장 "Introduction" ..... Free Sonata Form

제2악장 "Scherzo" ..... Compound 2 part Form

제3악장 "Intermezzo" ..... Free Form

제4악장 "Aria" ..... Large 2 Part Form

제5악장 "Finale" ..... Rondo Form

(주) 1. 제1악장은 제시부를 반복하지 않으므로 Codetta가 필요없으며 재현부가 생략되고 제5악장의 D가 제1악장의 재현부가 생략되고 제5 구실을 한다.

2. 제2악장은 a+bc로 되었고 제3부에 해당되는a가 생략되고 제5악장의 C가 제2악장의 제3부의 구실을 한다.

3. 제3악장은 Leimotiv에 의한 자유로운 발전이다.

4. 제4악장은 A+B로 되었고 제3부에 해당되는 A가 생략되고 제5악장의 B가 제4악장의 제3부의 구실을 한다.

5. 제5악장은 A+B+A+C+A+D+A-Coda로 되었고 여기에 있어서 B,C,D는 각각 제4,2,1악장의 제3부의 역행형으로 되었다.

### 〈Technique〉

#### 제1악장

1. 1st Theme에 앞서 Lemotiv가 나타난다. (악보 11)



2. 12음음계에 의한 음열(악보 12)을 가지고 1st Theme을 만들었다. (악보 13)

(주) 12음기법에 의하여 1st Theme을 만들었으나 경과음, 보조음, 도입음, 반 음등 비화성음을 활용하여 가급적으로 선율성을 띠도록 하였다.

3. 7음음계에 의한 음열(악보 14)을 가지고 2nd Theme을 만들었다. (악보 15)

(주) 여기에서도 비화성음을 활용하였다.

4. 발전부에서는 1st Theme의 요소(a,c)와 2nd Theme의 요소(b,d)를 재료로 하여 abcd,bcda,cdab,dabc,adcb,dcba등으로 연결 발전시켰다.

## 제2악장

1. 유구음계에 의한 음열(악보 16)을 가지고 (악보 17)를 만들었다.

2. 전음음계에 의한 음열(악보 18)을 가지고 b(악보 19)와 c(악보 20)를 만들었다.

(주) 이 때에 c는 음열의 역행형으로 만들어졌다.



### 제3악장

1. Leimotiv를 가지고 Chorale풍으로 작곡하였다.
2. 대위법적 기교를 떠나 화성적으로 처리하였다.

### 제4악장

1. 7음음계에 의한 음열(악보 21)을 가지고 A를 만들었다.(악보 22)



2. 제1악장의 2nd Theme을 가지고 B를 만들었다.

### 제5악장

1. 5음음계에 의한 음열(악보 23)을 가지고 A를 만들었다. (악보 24)



2. B는 제4악장 A의 역행형을 사용했다.
3. C는 제2악장 a의 역행형을 사용하였다.

4. D는 제1악장 재현부의 역행형을 사용하였다.

#### <기타>

1. 제1,2,3,3,4악장에서는 Coda를 생략했다.
2. 제2,3,4,5악장에서는 Introduction을 생략했다.
3. 제1,2,4,5악장에 있어서 음열기법에 있어서의 대위법적 기교 (O+I,I+R,R+RI,O+R,I+RI등)를 활용하였다.
4. 박자기호를 자주 바꾸지 않고 Syncopation으로 변박자의 효과를 나타냈다.
5. 단음을 1 Octave 또는 2,3 Octave 변경시켜 폭이 넓게 대담하게 도약진행을 하는 선율법을 구사했다.
6. Schonberg의 음색선율의 기법을 활용하였다.
7. 악기편성에 있어서의 6기법을 구사했다.(표1 도표 참조)
8. 제1,2악장과 제4,5악장을 각각 Attacca로 연주하도록 하였다.
9. 이 작품은 Symphony NO.4에서 창안,시도했던 Form에 대한 개혁을 -확신을 가지고 과감히 수행한 나의 야심작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Symphony No.6 「탐라」>

이 작품은 1966년 7월에 제주도 민요 녹음모집여행을 갔을 때의 인상을 그린 것으로서 음악기행문에 해당되는 곡이다.

제주도 민요는 육지의 민요와는 완전히 구별지을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작품에서 나는 오돌독,봉지가,이야흥의 Motive만을 사용하여 자유롭게,환상적으로 작곡하되 소박한 맛을 살려보려고 노력했다.

#### <Instrumentation>

Piccolo, Flute(2), Oboe(2), English Horn, Clarinet(2), Bass Clarinet, Bassoon(2), Double Bassoon, Trumpet(2), Horn(4), Trombone(2), Tuba, Timpani, Side Drum, Bass Drum, Cymbals, Gong, Female Chorus, Male Chorus, Mixed Chorus, 1st Violin, 2nd Violin, Viola, Cello, Double Bass

#### <Form>

3 Theme에 의한 Free Sonata Form

- (주) 1. 제주도는 삼다,삼무,삼보,삼신의 나라이므로 3 Theme을 사용하였다.  
2. 단악장이나 제시부와 발전부 사이에 제2악장에 해당되는 Episode I이 삽입되었고, 발전부와 재현부 사이에 제3악장에 해당되는 Episode II가 삽입되었다.

#### <Technique>

제시부

Introduction에 이어 3 Theme이 제시된다.

- (주) 1. 1st Theme은 「이야흥」의 Motive를 소재로 하여 만들었다. (악보 25)





2. 2nd Theme은 「봉지가」의 Motive를 소재로 하여 만들었다. (악보 26)



3. 3rd Theme은 「오돌독」의 Motive를 소재로 하여 만들었다. (악보 27)



#### Episode I

1. 이것은 제2악장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해녀의 망령의 노래」이다. (악보 28)



2. 이것은 가사가 없는 여성합창으로 연주된다.

3. 이 선율은 Glissando로, 폭이 넓은 Vibration으로 연주된다.

#### 발전부

1st, 2nd, 3rd Theme이 각각 부분적으로 발전된다.

#### Episode II

1. 이것은 제3악장 Scherzo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어부의 망령의 노래」이다.

2. 이것은 가사가 없는 남성합창으로 연주된다.
3. 이 선율도 Glissando로 폭이 넓은 Vibration으로 연주된다.

#### 재현부

1. 제시부 때와 반대로 3rd, 2nd, 1st Theme의 순서로 제시된다.
2. Codetta는 Introduction으로 대응했다.
3. Coda에서는 「양민의 망령의 노래」가 혼성합창으로 연주된다.



4. 이 선율도 Glissando로, 폭이 넓은 Vibration으로 연주된다.

#### <기타>

1. 1st Theme은 완전 4도 역행으로 연주된다.
2. 2nd Theme은 완전 5도, 장2도 병행으로 연주된다.
3. 3rd Theme은 완전 4도, 단7도 병행화음(3음 4도화성)으로 연주된다.
4. Episode I 에 있어서 여성합창은 파도를 묘사한 장3도, 완전5도, 증5도 병행화음의 반주로 연주된다.
5. Episode II 에 있어서 남성합창은 바람을 묘사한 Chromatic Passage의 반주로 연주된다.
6. Coda에 있어서 혼성합창은 장3도 병행의 반주로 신비스럽게 연주된다.
7. 제주도 민요는 대부분이 노동민요이므로 타악기 반주 없이 불리워진다. 따라서 육지의 민요처럼 리듬을 강조하지 않는 것이 특색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대로 타악기를 드물게 사용하여 소박한 맛을 살려 보았다.
8. 이 작품은 Symphony No.4, No.5와는 달리 대위법적 기교는 물론 Harmonia Ostinato의 기법을 사용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관현악의 일원으로서의 무가사(無歌詞)에 의한 인성(人聲)을 통하여 Exotic한 정서를 표출하는데 그친- 나의 Pastoral Symphony(?)라 할 수 있다.

樂器編成叫 六技法

